

# 10

## 아름다운 문자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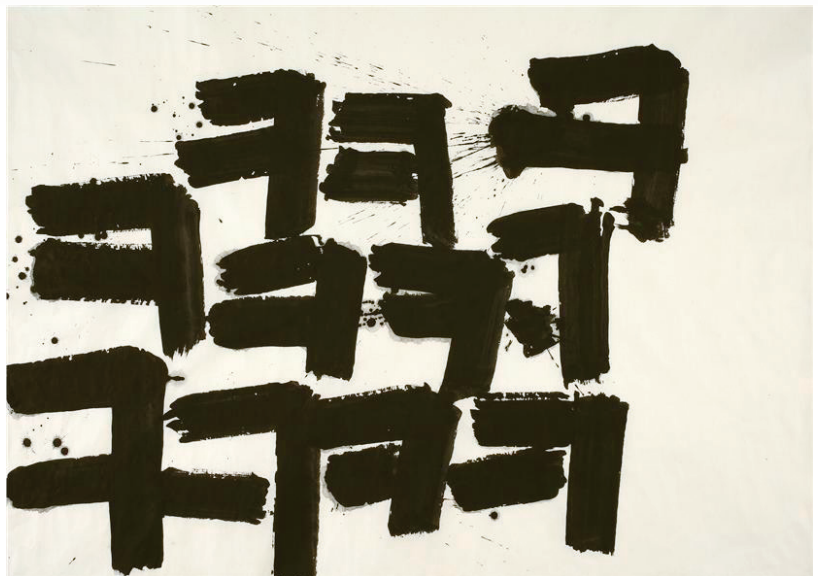
- 1 서예와 전각의 조형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2 일상생활에서 실용적으로 문자 표현을 활용할 수 있다.



“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문자 예술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

▲최정화(한국/1961~) 생명의 나무(한지, 철근 프레임 설치/가변 크기/2016년)

서예는 문자를 표현하는 예술이다. 예로부터 글씨를 쓰는 행위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이자 마음가짐을 담은 그릇으로 여겼다. 점과 획이 모여 글자가 되고 글자는 짜임새를 갖추어 생동감과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종이, 붓, 먹, 베틀 등 재료와 용구의 특성과 사용법을 익혀 즐겁게 글씨를 써 보자.



▶ 이완(한국/1982~) ㅋㅋㅋ(한지에 먹/ 146x203cm/2020년)



## 서예의 표현

붓을 잡는 방법이나 쓰는 자세는 글씨의 크기에 알맞게 선택하여야 한다. 붓을 대고 그어서 떼는 용필의 과정과 붓의 방향, 압력, 속도 등 운필의 변화로 점획을 표현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느낌이나 감정을 나타내 보자.



▲ 팔의 자세: 침완법(작은 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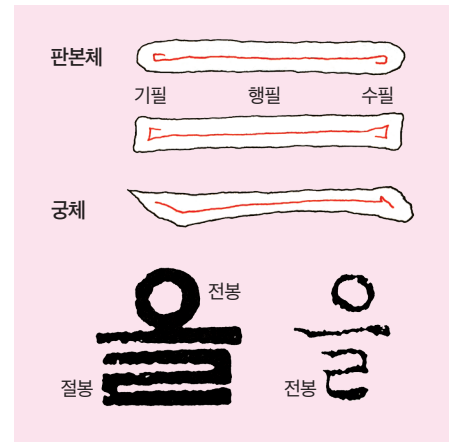


▲ 팔의 자세: 제완법(중간 글씨)



▲ 팔의 자세: 현완법(큰 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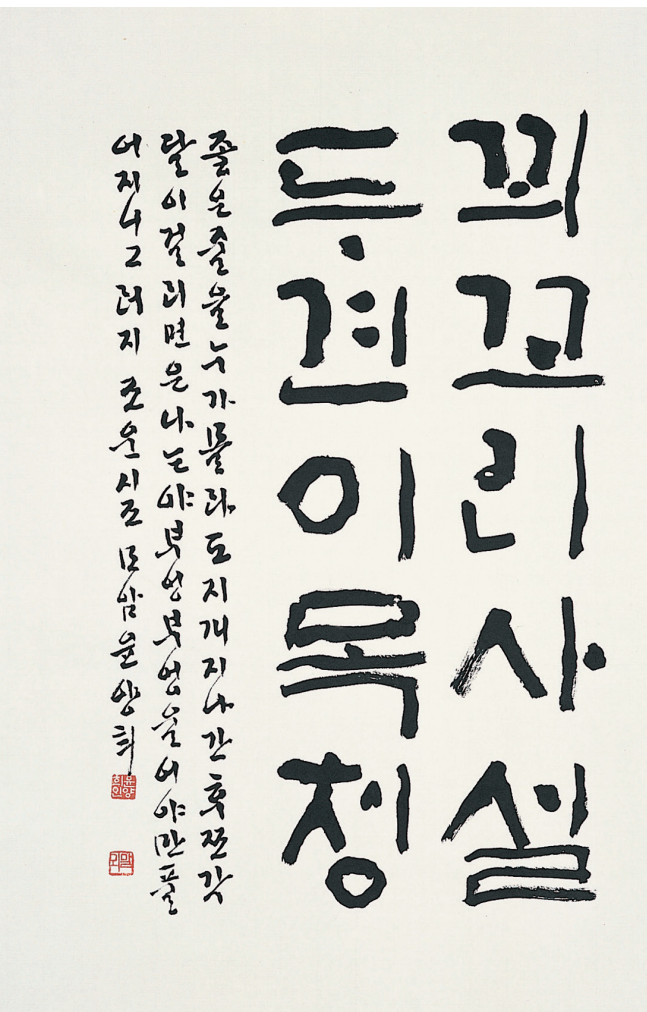
▶ 붓을 잡는 법(쌍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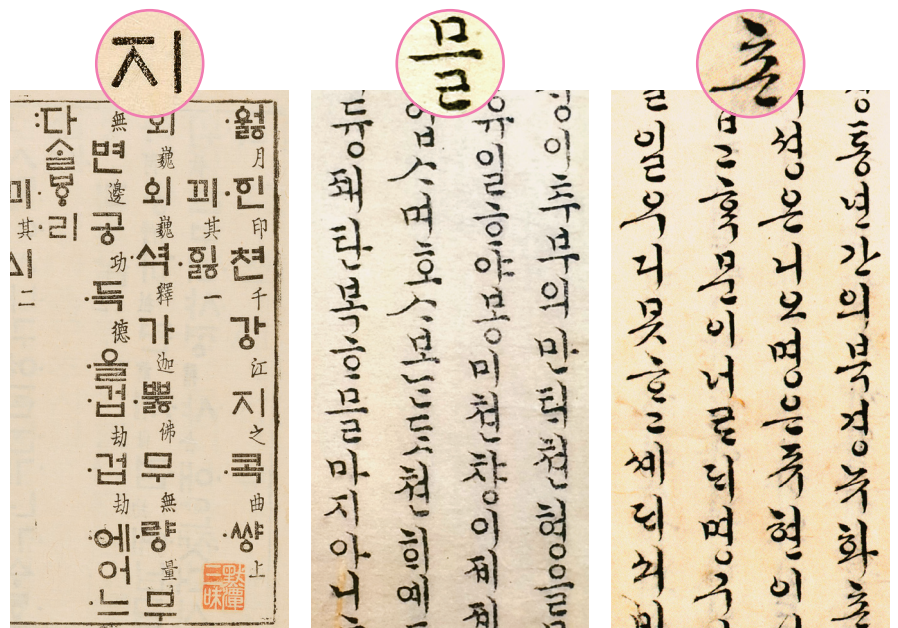
▲ 한글 서체의 용필

## 한글 서체

한글은 하늘, 땅,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모음과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자음으로 이루어진 독창적인 문자이다. 한글 서체는 글자의 판각이나 활자 자형을 바탕으로 한 판본체, 조선 시대 궁중의 내관이나 상관이 완성한 궁체가 있다.



▲ 윤양희(한국/1942~) 부영이(한지에 먹/57×41cm/2003년)



**판본체**  
월인천강지곡(부분/금속 활자본/31×20.5cm/1449년) 자형은 사각형에 가깝고 문자의 중심이 중앙에 있으며 점획의 굵기가 일정하다.

**궁체-정자**  
옥원동회연(부분/필사본/27.8×20.2cm/조선) 자형은 삼각형, 사다리꼴, 마름모 등 다양하고 문자의 중심이 오른쪽에 있으며 점획의 굵기나 길이에 변화가 있다.

**궁체-흘림**  
낙성비룡(부분/필사본/30×21.4cm/조선) 정자와 섞어 쓰기도 하며 글자의 점획이 생략되거나 연결되는 현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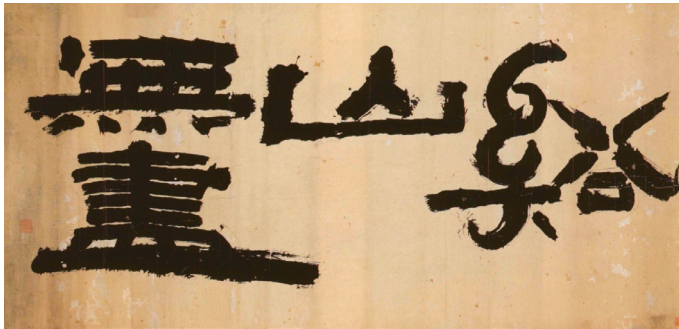
## 한문 서체

한자는 상형 문자를 바탕으로 한 표의 문자이고 도구의 변화와 쓰기의 편리성에 따라 서체가 발달하였다. 대표적인 한문 서체로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가 있다. 자형과 점획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문자의 서체별 변화를 보면 자형과 용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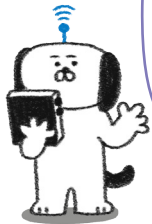
### 서체의 변화서(書)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 김정희(조선/1786~1856) 계산무진(한지에 먹/165.5×62.5cm/19세기) 전서와 예서의 필법을 혼용하여 대담하게 썼다.



김정희는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서화가입니다. 일찍부터 중국에서 이름난 유학자들과 교류했고 문자와 서예를 바탕으로 한 금석학을 깊이 연구해서 독특한 추사체를 완성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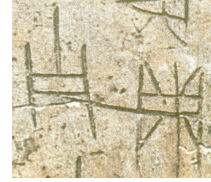
📖 1권 15쪽 「예술과 학문의 정신을 묵향에 담다, 김정희」 참조

## 서예의 역사와 재료의 변화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에 한자는 거북의 껍데기, 청동, 돌, 대나무 등에 쓰거나 새겼다. 문자는 재료의 특성과 용구의 차이에 따라 형태나 느낌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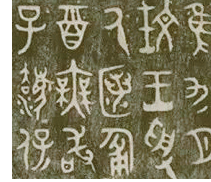
### 갑골문

거북의 껍데기나 동물의 뼈에 송곳 같은 도구로 새겨 날카로운 느낌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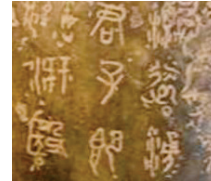
### 종정문

주물로 만든 제기(祭器)에 새겨진 문자이다. 흙으로 만든 원형에 새겨 부드러운 느낌이 난다.



### 석고문

북 모양의 큰 돌을 쪼아서 새겼다. 선의 굵기가 일정한 전서의 특징을 보여 준다.



### 죽간

대나무를 쪼개어 붓으로 쓰고 끈으로 엮었다.



### 서책

종이가 발명된 뒤 인쇄술을 비롯하여 붓씨도 발달하게 되었다.



## 표현 활동

### 판본체의 특징을 이용하여 쓰기

#### 표현 재료

화선지, 붓, 먹, 베틀, 문진, 연적, 접시, 모포

- 1 6~8자의 한글 단어나 짧은 문장을 선택한다.
- 2 종이에 글자를 배치하여 글자의 크기를 정하고 반복하여 연습한다.
- 3 마음에 드는 작품을 골라 발표하고 느낌과 생각, 점획의 시각 효과를 두고 이야기한다.

아름다운  
우리글씨

▲ 판본체 예제-『월인천강지곡』 한글 활자 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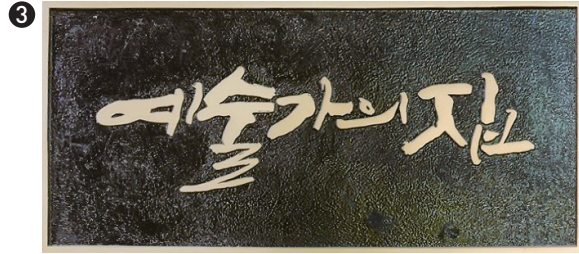


## 생활 속 문자 예술

예로부터 문자는 생활에 직접 쓰이거나 예술적 표현에 사용되는 등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해 왔다. 문자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담아 실생활에 적용해 보자.



▲ 이기우(한국/1921~1993) 포금와화(백자/21×18×5cm/1973년) 안동오(1919~1989)의 백자 편병에 네 글자를 전서로 쓰고 새겼다.



▲ 거리의 한글 간판 ①과 ②는 일중 김충현(한국/1921~2006) 작가, ③은 강병인(한국/미상) 작가가 쓴 서예를 현판으로 제작한 것이다. 서예나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현판이나 표지석은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며 지시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 장소의 성격이나 가치를 나타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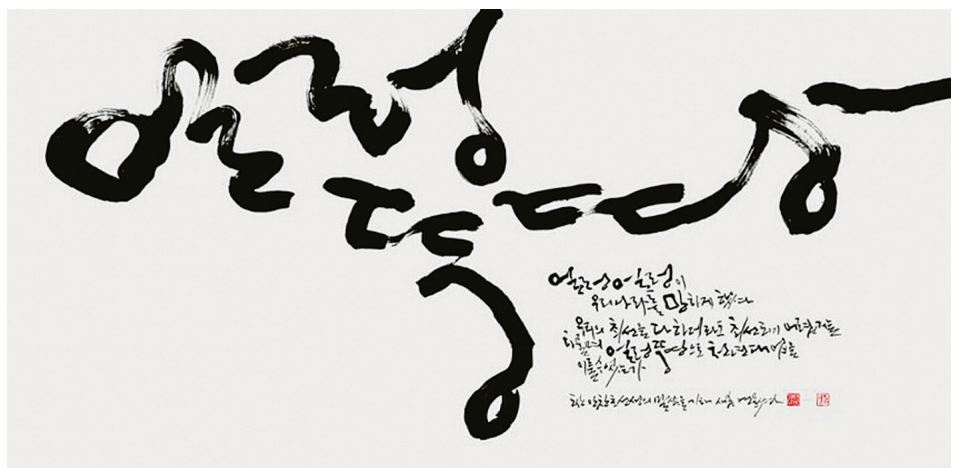
▲ 버선본(22.7×14.5cm/19세기) 버선을 만들기 위해 한지로 만든 본이다. 자손이 부흥하고 부귀공명을 누리고 오래 살기를 기리는 삶의 기원을 담았다.



▲ 한글 스카프(국립중앙박물관/2023년) 손수건이나 스카프에 붓글씨로 쓴 한글을 프린트하여 활용하였다.



▲ 임채은(학생 작품) 꽃(종이에 붓 펜, 오일 파스텔, 색연필/39.4×27.2cm)



▲ 강병인(한국/1962~) 도산 안창호 말씀(화선지에 먹/140×203cm/2019년)

### 용어+

• 캘리그래피(calligraphy)란?

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을 뜻한다.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서 쓴 손 글씨이다. 역동성과 상징성이 주목받으면서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된다.



## 전각, 문자를 새기다

전각은 돌, 나무, 금속 등의 재료에 전서를 새기는 데서 발전하였고 믿음이나 증명의 표시로 쓰였다. 새기기 좋은 재료가 발견되면서 많은 서화가가 직접 도장을 새겨 사용하였다. 현대에 이르러 한글, 한자를 비롯한 다양한 문자나 기호도 제작하고 있다. 전각과 유사한 기법으로 현판이나 비석 등에 글씨를 새기는 것을 서각이라 한다.



▲ 옥당(玉堂) (나무/105.3×60cm/1652년) 이정영(1616~1686)의 글씨를 양각으로 새긴 서각 작품이다. 옥당은 홍문관의 별칭이며 전서체로 쓰였다.



▲ 인장(돌/각 6.1×3×3cm/20세기)



▲ 봉니(홍/2.8×2.7×0.9cm/낙랑, 기원전 1세기~기원후 4세기)



▲ 어보-단종 복위 시호 금보(금속/6.9×9.8×9.8cm/조선 시대)

도장은 참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졌구나.



## 전각의 종류

새기는 방식에 따라 양각(주문), 음각(백문)으로 구분하며 새긴 무늬의 내용에 따라 성명인, 아호인, 사구인, 당호인 등으로 나뉜다. 용도에 따라 관인, 사인, 수장인, 장서인, 감상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전각의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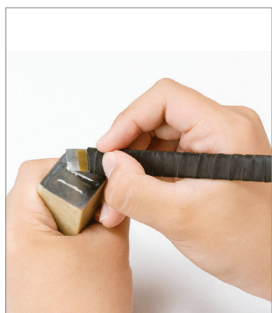
도장을 잘 새기기 위해서는 문자를 정확히 쓰는 법, 글자를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방법, 칼을 사용하는 방법을 잘 익혀야 한다.



▲ 윤화인(학생 작품) 빛보(돌/2.1×2.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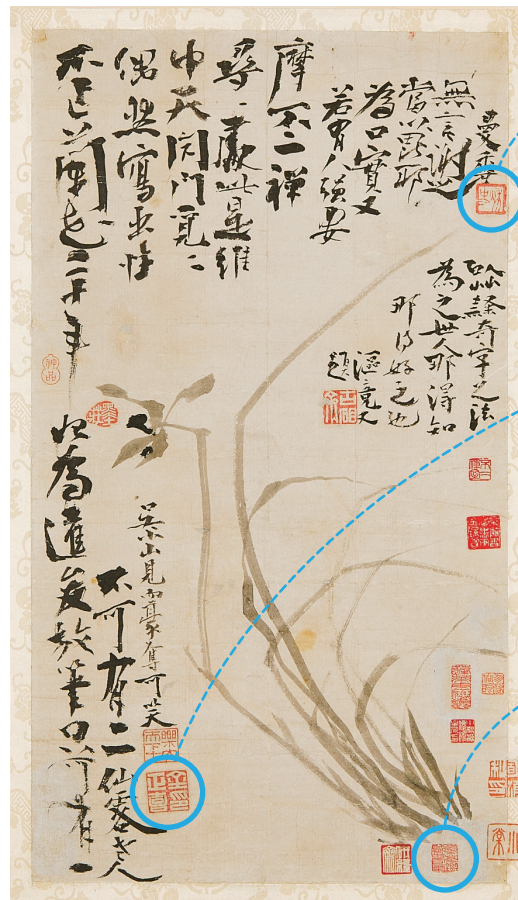
▲ 윤이석(학생 작품) 이석(돌/2.1×2.1cm)



밀어 새기기



당겨 새기기



아호인: 추사



성명인: 김정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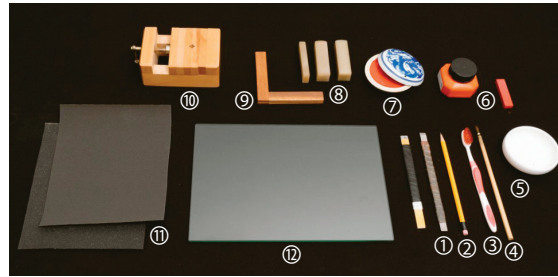
감상인: 소전감장서화

▲ 김정희(조선/1786~1856) 불이선란도(종이에 먹/54.9×30.6cm/19세기)



표현 재료

점토, 전각도(또는 조각칼), 인주(또는 스탬프), 주묵, 세필, 사포, 칫솔, 트레이싱지, 먹지



▲ 전각 재료와 용구 ①전각도 ②연필 ③칫솔 ④세필 ⑤접시 ⑥주묵 ⑦인주 ⑧석인재(돌) ⑨인상 ⑩사포 ⑪유리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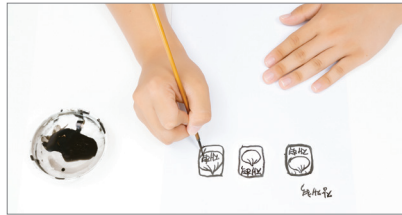
용어+

- 인구란? 도장을 찍을 때 사용하는 용구이다. ‘ㄱ’자 또는 ‘T’자 모양이고 그 직각 부분에 도장을 맞추어 찍는다.
- 인상이란? 새기기 쉽도록 도장을 고정하는 용구이다. 손으로 잡기에 크거나 단단한 도장을 새길 때 사용한다.

제작 과정



① 도장의 형태를 스케치한 뒤 점토로 도장을 만들어 일주일 이상 서서히 말린다.



② 이름, 기호, 그림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도장을 구상한다.



③ 도장을 새길 면을 사포로 갈아 다듬는다.



④ 사포로 간 면에 물감을 바르고 충분히 말린다.



⑤ 트레이싱지에 구상한 초안을 옮기고 뒤집어 좌우 반전을 시킨 뒤 먹지를 이용하여 도장에 베풀어 놓는다. 옮겨진 초안에 따라 칼을 안으로 당기거나 밖으로 밀어서 새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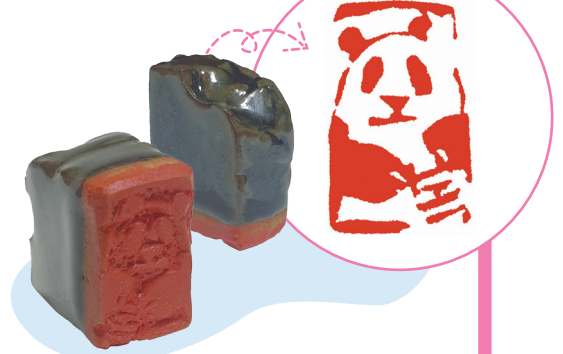
⑥ 새긴 도장을 찍어 확인하고 수정하여 완성한다. 완성한 도장은 가마에 굽거나 유약을 입혀 쓸 수도 있다.



▲ 김두영(학생 작품) 성명인(점토 소성/지름 4.5cm)



▲ 김민선(학생 작품) 성명인(점토 소성/4.5×4.5cm)



▲ 장윤아(학생 작품) 푸바오(청자토 소성/3.0×1.8cm)

단원 점검하기

- 서예의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을 알고 서체의 표현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가?
- 전각의 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용도에 따라 효과적으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가?
- 문자 예술을 일상생활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붓 천 자루와  
벼루 열 개를  
모두 닳아 없앴다.  
- 추사 김정희 -